



똥떡 먹고 복 받아주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백설기, 절편, 인절미, 무지개떡, 송편, 약식 그리고 개떡까지. 그러나 똥떡이라는 떡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호기심이 가는 '똥떡'. 이 책은 똥떡의 유래와 그 속에 얽힌 옛 사람들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똥떡/이준희 글·박지훈 그림/임재혜 감수 /언어세상/40쪽/값 8,500원

책을 펼치면 하얀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똥을 누는 준호가 보입니다. “왜 준호는 한손에 신문지를 들고 있을까? 왜 변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질문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모두 이렇게 나무판자로 만든 냄새나는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했고, 신문지로 휴지를 대신했습니다. 이 책에는 요즘 아이들이 낯설어할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추억들이죠. 고추를 말리는 모습, 술에 떡을 찌는 모습, 장독대와 닭 등 명절 때 다녀온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들 속에서 아이들은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찌죠? 준호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똥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는 똥통에 빠진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똥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옛 사람들은 똥떡을 만들어 뒷간 귀신의 화를 풀어주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풍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똥떡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똥떡이란 뒷간 귀신을 달래기 위해 팔과 쌀고물을 넣어 삶아낸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귀신에게 똥떡을 바친 준호는 이제 ‘똥떡, 똥떡’을 외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똥떡을 돌립니다.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이를 알리면서 이웃들과 복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똥통에 빠지면 오래 못 산다는 말이 사실인지, 뒷간 귀신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독이 많은 똥통에 빠진 아이를 달래고 아이의 기를 살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웃과 복을 나누는 정도 갖고 있었죠. 이 책은 아이의 잘못을 몰아세우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해 먹이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어른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투리 문화를 찾는다는 시도로 기획된 책 속에는 컴퓨터 게임과 피자, 햄버거 등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우리 고유의 풍습과 삶의 지혜를 선사합니다. 푸세식 화장실과 신문지를 휴지 대신 사용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모르는 아이들은 잔뜩 호기심을 갖고 책을 펼칠 것 같네요.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저런 화장실을 어떻게 써?” 말하겠지만 “우리 어렸을 적엔...”이라고 옛 사람들의 일상을 소개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오줌을 싸으면 소금을 얻어와야 한다, 손발톱은 밤에 깎지 말아라,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는 말처럼 엉뚱하고 터무니없이 들리는 옛 어른들의 말. 그 유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옛 사람들의 지혜와 풍습, 삶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발견의 재미를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추천**

김정연 기자



응, 상 못 타도 괜찮아!

어떤 아이는 노래를 못하는 대신 그림에 소질이 있고, 어떤 아이는 운동을 못하는 대신 외국어를 잘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늘 '1등'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특기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무조건 "너도 1등을 해봐" 강요하기 바쁘죠.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림 도둑, 준모》의 준모 역시 뭐든지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중간 아이'인 준모에게 상 받을 기회는 오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준모가 상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예린이의 그림과 준모의 그림을 착각했기 때문이죠. 준모는 이름을 적지 않은 예린이의 그림을 보며 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빠진 이름은 예린이 이름"이라고 말하지 못한 일을 떠올리죠.



그림 도둑, 준모/오승희 글/최정인 그림
/낮은산/104쪽/값 7,800원

이 책은 어린이들의 갈등과 내면의 '죄의식'을 꼼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어른들의 욕심을 비판하죠. 작가는 누구보다 평범하고 착한 아이 준모의 손을 들어줍니다. "나는 못난 아이인가?" 비판하는 아이들을 다독거리면서 "상을 타지 않아도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 공부!"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을 닦달하고 후회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이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선물해 주셔도 좋습니다. "엄마, 상 못 타도 정말 괜찮아?", "뭐 타는 게 좋긴 하지... 그래도 너, 기죽을 거 하나도 없다. 상 탄 사람만 가장 훌륭한 것도 아니고..." 엄마와 준모의 대화가 이웃집 이야기만큼 정겹습니다.



어디 어디 쓰이나? 한스의 뽀족 코

팀 버튼 감독의 <크리스마스 악몽>은 아이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불러모으기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배경이 되는 할로윈 마을은 음침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마을의 지도자인 해골 잭 역시 독특한 캐릭터로 소개되고 있죠. 책 속에도 이처럼 괴상한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한스 코는 꼬챙이 코》의 한스의 독특함은 애니메이션에 버금갑니다. 음침한 배경 속에서 있는 무표정한 한스는 미지의 세계에서 날아온 소년처럼 낯섭니다. 그렇지만 한스의 무표정한 얼굴과 뽀족한 코에는 알 수 없는 마력이 숨어 있죠. 한스의 코는 피노키오의 코처럼 겁니다. 이 친구는 꼬챙이 코로 글씨를 쓰고, 활을 쓰고, 다친 곰의 앞발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활이 없어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는 가난한 악사에게 코를 선물하는 따뜻함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스가 자신의 코를 쓰는 과정들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한스 코는 꼬챙이 코/제임스 크뤼스 글/
스타시스 에이드리케리치우스 그림/
이옥용 옮김/마루별/32쪽/값 8,800원

책은 엉뚱하고 기발합니다. 스타시스의 그림은 밝고 귀여운 캐릭터보다는 낯설지만 볼수록 정이 가는 캐릭터를 창조해 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역할을 해내는 한스를 보면 "꼬챙이 코가 저렇게 쓸모가 있다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독일의 아동문학가인 제임스 크뤼스가 쓴 시로 이루어진 이 책은 교훈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아이들을 즐거운 판타지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스 코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을 다 읽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연상과정을 통해 다양한 답을 찾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몇 배로 좋아질 겁니다. ☞



김청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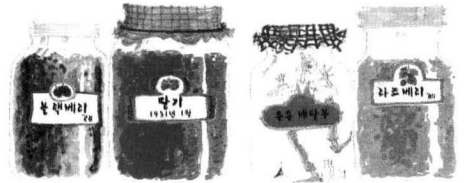
에밀리 아줌마, 친구가 그렇게 좋아요?

“친구랑 그만 놀고 들어와. 저녁 먹어야지!” 이 말은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놀이터에 모여 흠장난하기를 좋아하고, 미끄럼틀 위에서 장난을 치는 꼬마들에게 ‘친구들과 노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에밀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래들과 손잡고 깔깔거리기 바쁜 아이들을 닮은 할머니는 집에 오는 우유배달부, 배관공, 우체부를 차례차례 붙잡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친구들을 작은 잼병, 커피병, 피클병에 가두는 것입니다.



에밀리의 친구들/앤 콜리지 지음/폴랜드 하비 그림/이상희 옮김/문학과학성사 /32쪽/값 8,000원

다행히 할머니가 붙잡아둔 세 친구들은 할머니가 만든 인형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모두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마냥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러나 마을사람들의 걱정으로 경찰 아저씨가 찾아오면서 할머니는 친구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똑똑한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대신 경찰 아저씨를 붙잡습니다. 친구를 좋아하다 못해 병에 가두는 ‘소유욕’을 보여주는 에밀리 할머니를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책 한 장, 한 장을 잘 살펴보면 할머니의 엉뚱한 행동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할머니 집의 모든 사물들이 눈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친구가 필요한 에밀리 할머니의 단짝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내 것’이 소중하듯 ‘남의 것’도 소중하거야

“엄마 이거 예쁘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짝꿍의 학용품을 몰래 가져와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당황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매부터 들기 바쁩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난 그냥 예뻐서 가져온 건데...”라며 울기만 할 뿐 자신이 무엇을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아기너구리 또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은 평범한 꼬마입니다. 그래서 친구 뽀야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으스대는 걸 보고 뽀야 몰래 자전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또야 엄마는 화를 내지 않고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 후 또야가 아끼는 곰인형 ‘굴뎡이’가 사라집니다.



또야와 세발자전거/권정생 글/뱅상 그림 /표리원/60쪽/값 9,000원

또야는 자신이 아끼는 곰인형 ‘굴뎡이’를 뽀야가 가져갔음을 알고 슬퍼합니다. 결국 또야 엄마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세발자전거는 뽀야의 것이고, 굴뎡이는 또야의 인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사심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을 혼내는 것보다는 좋은 충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지혜를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는 ‘내 것’이 소중하듯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값진 책입니다. 중국풍의 그림은 동양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프랑스의 뱅상 교수님의 작품, 글은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김정연 기자

